

美하원 트럼프 탄핵조사 공개청문회 돌입

민주, '강요·뇌물' 등 용어로 범죄성 부각... 혐의 추가도 공화, 4개 방어논리 마련... '우크라이나 스캔들' 중대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의회 탄핵조사가 13일(현지시간) 공개 청문회로 전환, 조사 7주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증언을 미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청문회는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9월 24일 탄핵 추진을 위한 조사 착수를 발표한 후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각개혁위 등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증인의 비공개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13일부터 공개 청문회를 연다.

13일에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15일에 마리 옌비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가 나선다.

12일 AP통신과 CNN 방송, 워싱턴포

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 '참고 방패'로 맞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개 청문회를 앞두고 최종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여론을 주도할 메시지를 기다리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행위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려운 라틴어인 '퀴드 프로 퀴'(quid pro quo=대가) 대신 '강요', '뇌물수수' 등 범죄 관련성이 명확하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식이다.

민주당 집 하임스 의원은 NBC 인터뷰에서 "퀴드 프로 퀴는 잊으라"며 "대통령은 범죄적으로 행동하고 취약한 외국의 누군가에게 갈취하는 방식으로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조사를 주도하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백악관의 비협조는 "조사 방해의 증거"라며 사법부에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권한남용도 고려 대상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에 대한 '4가지 방어 논리'를 마련했다.

공화당은 탄핵조사 3개 위원회 소속의 원에게 제공한 메모에서 ▲7월 25일 통화 ▲펠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통화에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25일 통화하는 동안 미국의 지원 중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 ▲9월 11일 우크라이나 지원 보류는 해제됐다 등의 4개 사항을 요점으로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정보위와 일부 의원들은 12일 오후 의회 지하에서 공개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의 가상 역할도 세워 '모의 청문회'를 열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이들은 같은 날 저녁에도 다음날 청문회에 대비한 전략 회의를 계획 중이다. 그런가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아예

청문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미지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탄핵 청문회 생중계를 시청하지 않고 상원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탄핵은 정치적 소인네 나는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다"며 "하원에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상원으로 오면 그때 탄핵에 대한 업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청문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일종의 '무시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AP는 과거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에 현재 이뤄지는 탄핵 추진과 관련, 정치적 여건이나 미디어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영향도 짚었다.

또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와 진보 성향 MSNBC 등의 TV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이 기존 견해를 강화하거나 재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힐은 TV로 중계되는 청문회를 통해 "이제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탄핵조사에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원 정보위 시프 위원장은 오는 19-21일 사흘간 탄핵 공개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연합뉴스

“세계 원유 수요 2030년부터 증가세 둔화” 세계에너지기구...2030년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로 원유 수요가 2030년경 정체기에 돌입할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IEA는 이날 발간한 '2019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기준 하루 9천690만 배럴인 세계 원유 수요가 2030년에 1억540만 배럴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후 수요 증가세는 크게 둔화해 2040년에도 하루 1억640만 배럴에 그칠 것이라는 게 IEA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IAEA는 하이브리드 등 고동차로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 수요가 각

각 줄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원유 수요 증가를 주도해 온 중국의 석유 소비도 2030년대에 정점을 찍고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추정했다.

파터 비를 IEA 사무총장은 "석유 수요는 2030년 이후 정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수요 증가세는 2025년까지 활발하다가 그 뒤로 몹시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IEA는 기존 유전의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새 유전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배럴당 60달러 내외인 국제유가가 2030년에는 90달러, 2040년에는 103달러로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리커창 “중경제 하방 압력...위기의식 높아야”

리커창(李强)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면 위기의식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1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전문가와 기업가를 모아놓고 경제 상황에 대한 좌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운행이 합리적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취업자 목표도 이미 달성했다면서 "중국이 안정적으로 중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는 어렵게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외부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으며, 기업 경영의 어려움도 커지는 등 문제가 얽혀있다고 진

단하면서 "반드시 위기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3분기에 6.0%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런 성장률은 27년 만에 최저다.

리 총리는 또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사용을 개선하고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숨은 장벽을 허물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돼지 생산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불합리한 양돈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시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동시에 추진해 가격 급등세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사육 수가 급감해 돼지고기 가격이 1년만에 2배로 뛰었다. /연합뉴스

美법원 “공항서 영장없는 휴대전화·노트북 수색 위헌”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검사하며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항과 항구 등 출입국관리소에서 임의로 이뤄지는 세관경비국(CBP)의 전자기기 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당국이 영장 없이도 여행객의 물품 수색을 가능하게 한 미국 법의 오래된 예외조항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합리적이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캐스퍼 판사는 정부가 테러를 방지하고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여행객을 수색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려면 그들에게 뚜렷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별다른 혐의 없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수색당한 여행객 11명을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제기했다. /연합뉴스

물대포 맞는 대학생들... 더 격렬해진 홍콩시위



12일(현지시간) 홍콩 중문대학에서 시위에 나선 학생들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서 흑사병 환자 발생...전염 차단 '비상'

네이멍구 2명 확진 받아

중국에서 위벼룩을 매개로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가 발생해 전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망에 따르면, 네이멍구 자치구 시린귀러맹에서 최근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흑사병 환자 2명은 지난 3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흑사병 확진을 받았다.

중국 의료당국은 현재 환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마친 상태며,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당국의 발표에도 흑사병 확진 판정 소식이 알려지자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흑사병 환자들은 병원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흑사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확진 판정까지 열흘 가까이 시간이 걸린 것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위벼룩을 매개체로 페스트균에 의해 전염되는 흑사병은 2012년 마다가스카르에서 총 256건의 발생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60명이 목숨을 잃어 세계 최대 사망자 숫자를 기록했다.

2017년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흑사병으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는 이 전염병으로 2천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